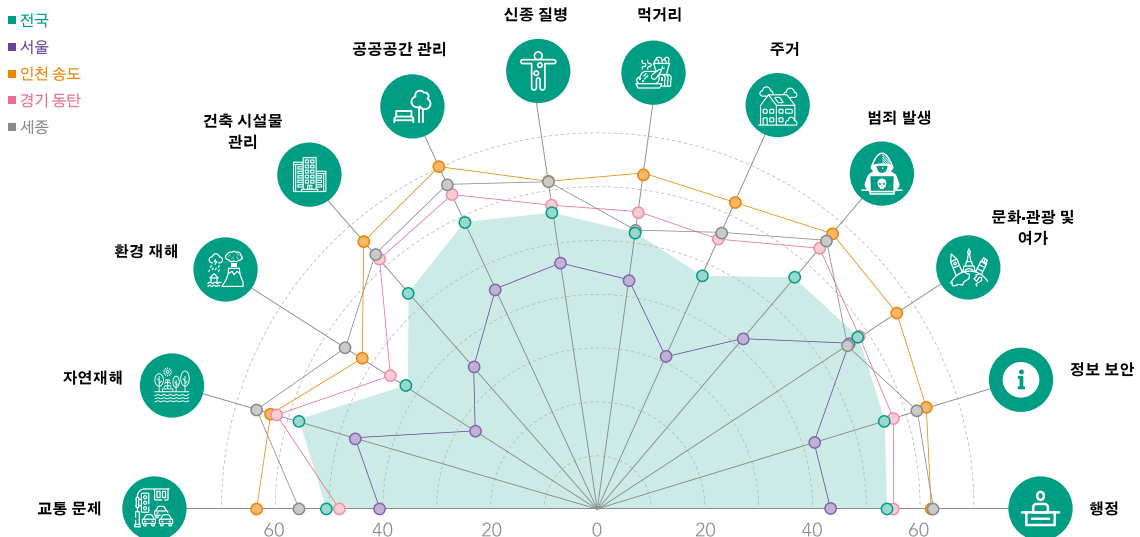


국민들은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최근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스마트시티를 목적으로 조성된 인천 송도 신도시, 경기 동탄 신도시, 세종시와 교통·행정·방범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 시민 중 16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8년 11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Q 정부 차원의 대응이 불만족스러운 도시 분야 문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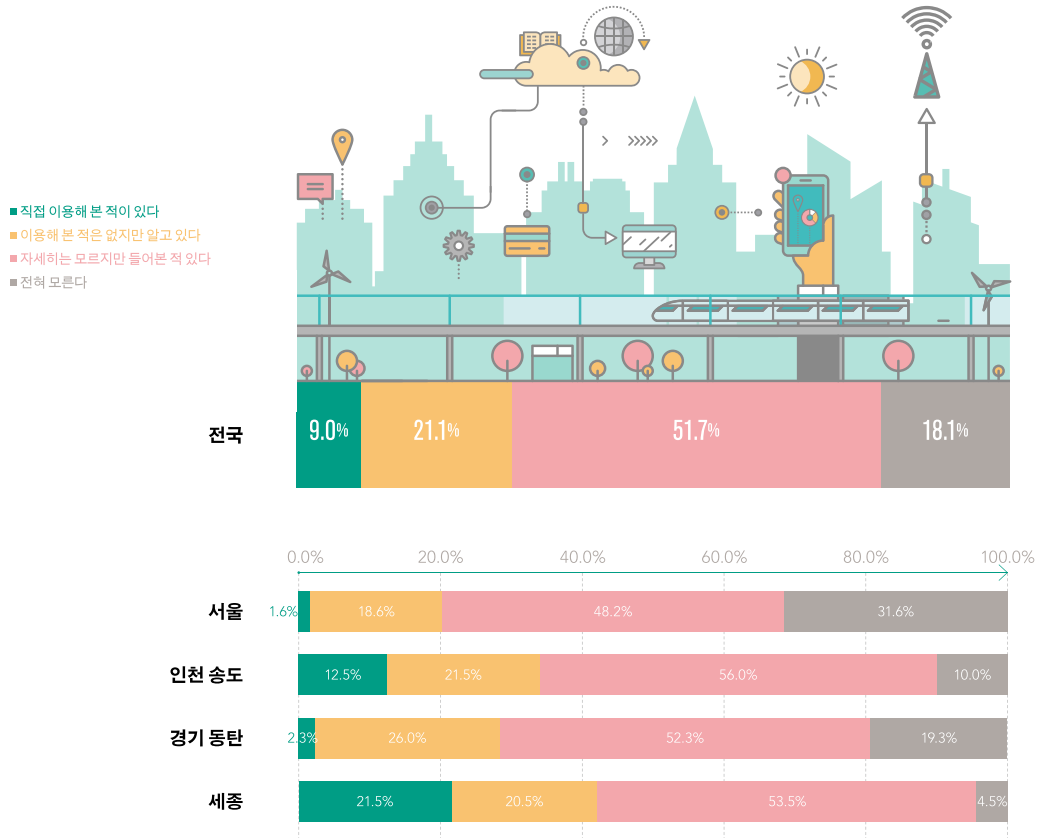
단위: 0점 매우 불만족
~100점 매우 만족



A 미세먼지 등의 환경 재해와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체계에 불만

도시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에 대해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수질오염, 라돈 등의 환경 재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가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밖에 적절한 가격의 주택 부족과 주거 환경의 질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공원·광장·보행로 등의 공공공간에 대한 대응체계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민들의 정부 대응체계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Q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지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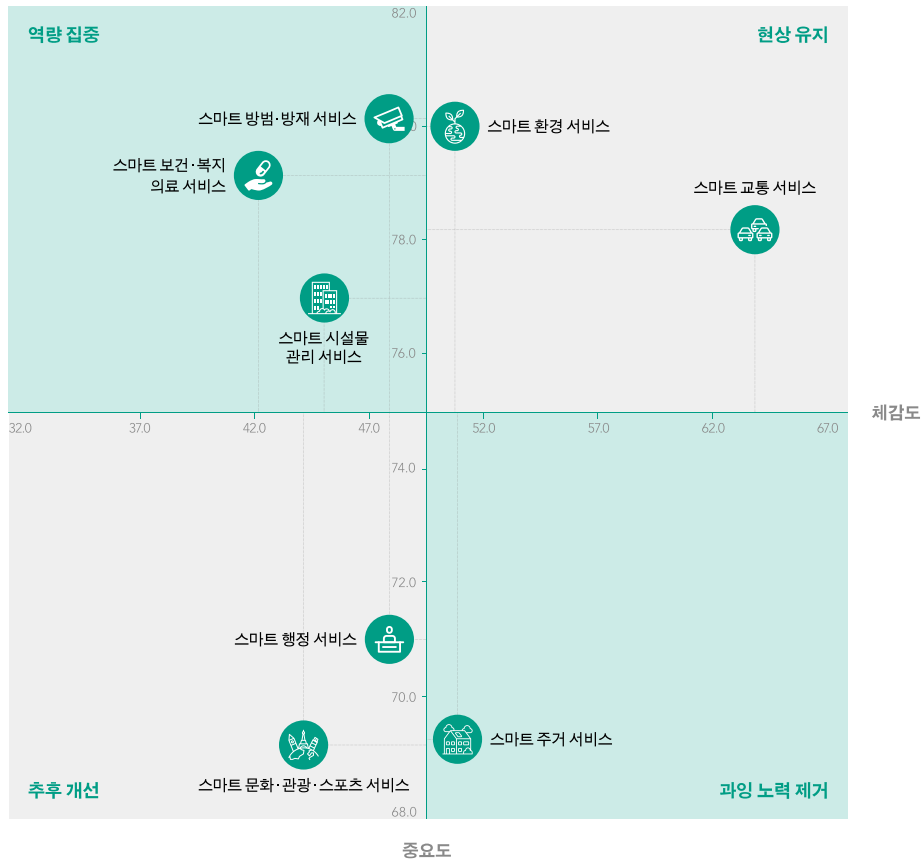


A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이며, 지역별·연령대별 차이 존재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직접 이용했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였다. 지역별로는 세종시(42.0%)와 인천 송도 신도시(34.0%) 시민의 인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5~44세(34.5%)와 25~34세(33.1%)의 성인 세대 인지도가 16~24세(30.9%)의 청소년·청년 세대와 45~59세(23.6%)의 장년 세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Q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와 체감도는?

단위: 0점 매우 중요하지 않다 또는 체감하지 않는다
~100점 매우 중요하다 또는 체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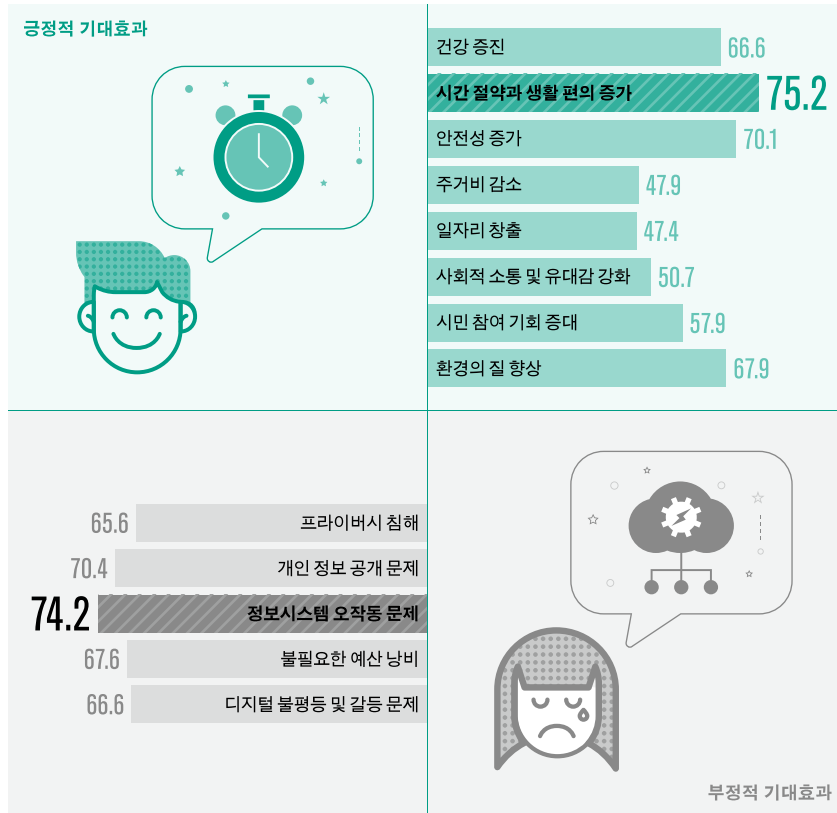


A 방법·방재, 보건·복지·의료, 시설물 관리 분야의 스마트 서비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8개 스마트 서비스 분야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앞으로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제도는 인공지능과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방법·방재, 보건·복지·의료, 시설물 관리 분야의 스마트 서비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최근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주요 관심 분야인 스마트 주거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잉 노력을 지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Q 스마트시티 구현을 통해 기대하는 점과 우려하는 점은?

단위: 100점 환산



A 가장 크게 기대하는 효과는 '시간 절약과 생활편의 증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정보 시스템 오작동 문제'

국민들은 스마트시티 구현을 통해 '시간 절약과 생활편의 증가'(75.2점)와 '안전성 증가'(70.1점) 측면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47.4점)과 '주거비 감소'(47.9점)에 대한 기대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들은 스마트시티 구현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시스템 오작동 문제'(74.2점)와 '개인정보 공개 문제'(70.4점)에 대한 우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근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강화와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